

공산당선언 150주년 학술제를 제안합니다

수신: 학생 사회를 고민하는 학내 모든 자치 단위들
발신: 공산당선언 150주년 학술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학생 운동의 위기, 학생 사회의 침체가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고, 이제는 이런 말이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운동이나 학생 사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동의 위기나 학생 사회의 침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정답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보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답은 계속해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시도들, 그 시도들의 축적 안에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공산당 선언 150주년 학술제를 열어 보고자 합니다. 마르크스와 그의 동지들이 세계를 변혁하기를 촉구한지 150년 후에, 그리고 그 마르크스주의의 명이 다했다 공공연히 말해지는 세기말, 굳이 공산당 선언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잊기 위하여 먼저 기억하자고 얘기합니다. 피억압자들 스스로에 의한 해방을 공식으로 선언한 이 공산당 선언의 주장은 현실의 억압이 존재하는 현재에 비취봤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기에 먼저 기억하자는 주장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 현실에 맞는 수정과 재해석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애초 공산당 선언이 촉구한 인간 해방의 실현을 위한 실천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입니다. 서구에서 올해 들어 공산당 선언을 재조명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좌파 잡지를 채우고 있고, 5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규모의 공산당선언 1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운동의 위기가 말해지는 지금, 공산당 선언은 우리에게 다른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공산당 선언은 당대 구체적인 현실의 모순에서 출발한 피억압자들의 자기 해방의 선언문입니다. 지금 학생 사회에서 자치 활동의 위기는 곧 우리 삶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보수화되고 우리를 옥죄워 오는 이 사회 현실과 또 억압적인 교육 체계 등과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스스로 해방을 선언하고 자치 활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 바로 공산당 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현재적 의미일 것입니다. 덧붙여 자본주의의 여러 파국적 정후들에 대해 전 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거부할 때, 바로 우리의 자치와 자유가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은 150년이 지난 지금 바로 여기서의 해방의 선언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MF라는 경제위기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학생사회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인 집단 내에서조차 국가와 자본의 논리에 대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대항 담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도 이런 논의들이 실질적인 하나의 흐름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통의 전략의 수립이라면, 이러한 공통의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이론의 공유와 소통의 작업들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산당선언 학술제를 제안하는 것은 학생 사회 안에서 바로 이런 민주적인 이론 공유와 소통의 작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IMF라는 거대한 공룡 앞에서, 150년 전에 떠돌았던, 그러나 지금은 책장 속의 유물이 되어 버린, 거대한 유령을 다시 불러내는 일은, 변화된 상황들을 치밀하게 분석해내고, 그를 통해 그 당시의 감흥과 현실적인 추동력을 지금, 여기에서 이끌어 낼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 목표

첫째, 이론의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밀실에 갇혀 있는 자족적인 학회/동아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소통과 토론의 장, 활동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의 학회/동아리/자치단체의 위기, 침체 상황을 벗어 날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회/동아리/자치단체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여태까지 해 왔던 말들을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 축적되어져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성찰함으로써 이론 생산의 장으로 활용되어졌으면 합니다.

◆ 형식

기존의 많은 학술제나 토론회가 교수나 대학원생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토론회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 왔던 학술제와는 달리 80년대에는 다른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학회나 패밀리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학술제들이 많이 열렸는데, 그것은 논의할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물들은 곧 무크지 형태로 발표되어 실천에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자발적이고, 어떤 학습보다도 열정과 진지함이 넘쳤을 뿐만 아니라 긴박한 정세와 유리되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의 자산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전통과 연관지어 학술제는 여러 단위들의 기고문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공산당 선언에 대한 해석이나 학문적인 논의에 한정되기보다는 참여한 이들 각자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산당 선언을 고민의 출발점으로써 삼고, 그 안에서 자신의 학회/동아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연관시키면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채워진 기고문을 받고, 그 기고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학술제 당일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 일정

- ① 8월 첫째주: 학회/동아리/자치단체들에게 광범위한 제안 기간
- ② 8월10일~8월14일: 각 단위에서 참가 여부나 기고문의 작성 여부를 결정하여 연락해 주세요.
- ③ 8월14일~8월31일: 기고문 작성 마감 기간
- ④ 9월 1일~9월15일: 기고문들을 주제별로 분류, 자료집 완성, 선전작업.
- ⑤ 9월16일~18일: 공산당선언 150주년 학술제 기간

-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강양구(목하96, 012-1855-3197)에게 연락주세요!!!
- ▶ 학술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언, 150년 이후』(카피레프트, 이후)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냐 학술제에 대한 감이 잘 잡히시지 않는 분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